

선운지구 학생수 증가...학교 신설 필요

도시 팽창에 학교증설 등 대책 시급 학부모대책위, 선운중 증축 서명운동

광주 선운지구 관내 초·중·고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갈수록 악화하는 교육환경에 항의하며 집단 반발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의 안전한 교육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선운지구는 신도시 팽창 현상에 따른 학생 수요 증가 등으로 중·고등학교 신설 및 기존 학교 증설이 시급한데도, 수년째 별다른 조치 없이 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광주 선운지구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에 따르면 올해 선운초등학교 6학년 학생수는 229명(10개학급)으로 내년 졸업과 동시에 관내 선운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또 인근 삼도초와 분량초등학교 졸업생 20여명도 선운초 배정에 따라 선운중에 입학하고,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선운 2구지 진아리채아파트(600세대)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졸업생도 선운중학교 입학예고하고 있다.

반면 선운중학교의 교실 등 교육 인프라는 개선은커녕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선운중학교는 내년 3학년 졸업생이 156명(6학급)에 불과한데다, 현 시설로는 관내 초등학교 졸업생을 수용하기에도 교실 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 선운중학교 입학 예정자들 중 100여명은 4km 떨어진 송정중학교를 다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애들이 집 바로 앞 학교를 놔두고 4km를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해야 할 상황"이라며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도 큰 만큼



광주 선운지구 거주 학부모들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운중학교 증축 등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전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학급 증설 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학부모들은 일단 임시교실(모듈러 교실)이라도 확보해 전체 학생들을 수용해야 하며, 차선책으로 송정중학교 배정 학생들이 등·하교 때 이용할 수 있는 스쿨버스 배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 양관철 행정예산과장은 "임시교실을 설치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서 "스쿨버스 배정에 타 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선운지구 학부모들 사이에선 중학교 배정과 함께 고등학교 배정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선운지구 한 학부모는 "선운지구 교육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도 교육 당국은 남의 일 대하

듯 무관심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올해 광주 시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지원 방법을 바꾸는 바람에 선운중학교 졸업생 80%가 관외 원거리 고등학교에 배정돼 2시간 이상을 등·하교에 허비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올해 선운중학교 졸업생 164명 가운데 33명만 관내 고등학교에 배정받았으며, 나머지 학생 131명은 관외인 서구 소재 등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상태다.

결국 참다 못한 선운지구 학부모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운중학교 학교 증축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의 불합리한 교육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방식을 선택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160년, 디아스포라 고려인 역사 생생하게”

광산구, 고려인 이주 기념 사진전 연계 특강... 오늘 ACC

광주 광산구가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맞아 기획한 기념 사진전 '흠어진 이들의 삶이 여기에, 광주-고려인의 발자취와 삶의 기록'과 연계한 특강을 마련한다.

13일 오후 4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강의실(문화정보원 지하 1층)에서 '160년, 디아스포라 고려인 이주사 돌아보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강에는 김병학 광산구 월곡고려인문화관 관장이 강연자로 나선다.

김 관장은 1991년 대학생 시절 고려인 모국어 교육을 위해 카자흐스탄 한글학교 교사로 건너간 이후 25년간 현지에서 거주하며 고려인 역사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세상에 알리는 고려인 전문가다.

김 관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186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려인의 이주 역사를 1~4차

로 정리하고, 시기별 시대상과 고려인 동포의 삶을 세밀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1차(1863-1937년) 연해주 시기, 2차(1937-1938년) 스탈린 정권에 의한 강제 이주에 이어 교육 기회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찾아 유랑한 3차(1956년 이후), 소련 붕괴 이후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4차(1992년-현재)까지, 김 관장이 소장한 다양한 사진 자료와 함께 강의가 진행된다.

특강과 함께 '고려인의 발자취와 삶의 기록' 사진전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특설전시장(대나무정원)에서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월요일은 휴관.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운영일 의원 등 5명 '지방의정봉사상'

정재봉·공병철·강한솔·국강현

광산구의회 운영일, 정재봉, 공병철, 강한솔, 국강현 의원이 광주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형수)가 주관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광주시 5개 자치구의회의원 가운데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7일 열린 수여식에서 운영일 의원은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상'을, 정재봉, 공병철, 강한솔, 국강현 의원 등 4명은 '광주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상'을 받았다.

운영일 의원은 제9대 전반기 시민안전위원장을 맡아 현장중심형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봉 의원은 조선의원임에도 중책인 행정자

치위원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재선인 공병철 의원은 조선의원들뿐만 아니라 경제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한 점 등이 이번 수상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또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강한솔 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광산구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실성을 제고하고 구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4선인 국강현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는 변함없는 자세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생에 밀접한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돌봄이웃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광주 광산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돌봄 이웃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다. 소송 등 분쟁 발생 이전에 사전적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한 사례관리 회의 등을 통해 법률과 복지를 결합하고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

광산구 법률홈닥터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전 10시-오후 5시) 구청 3층 상담실에서 진행되며, 전화(062-960-3672)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비대면 상담을 원하면 전화로도 가능하다.

광산구는 구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법률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으로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현장 법률상담실'도 운영한다. 생활 속 주민의 법적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구,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 만들기 집중

불법 현수막 이어 안전·미관 저해 불법 가로등 현수막 일제 정비

광주 광산구가 '불법 광고물 제로(ZERO)' 도시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무관용 강력 대응으로 4개월 만에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를 실현한 데 이어 또 다른 골칫거리로 지목되는 불법 가로등 현수막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사진〉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월 불법광고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 이후 광산구 거리에서 불법 현수막이 대부분 사라졌다.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 추진 4개월간 구 자체 정비반에서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성 광고물 2만 2747건을 정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올 1월부터 강력한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선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실제 같은 기간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도 6517건으로, 지난해 3만 3860건과 비교하며 무려 80%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산구는 그동안 불법광고물 게시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섰으며, 실제 불법 광고물 정비 건의의 44%에 달하는 9989건에 대해 3억 8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수준이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수거보상제를 통한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는 3만 2950건으로 지난해 5만 6586건과 비교해 42%나 줄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와 신고 건수 등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불법 현수막에 이은 근절 대상으로 '불법 가로등 현수막'을 지목하고 있다.

각종 콘서트나 행사 홍보를 위한 게시했던 기간이 초과됐음에도 방치돼 있거나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로등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26개 구간, 약 256km)를 대상으로 불법 가



로등 현수막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구는 특히 불법 가로등 현수막 일제 정비 후에도 게시 가능 구간 외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거나 게시 기간이 만료됐지만 철거하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